
국립국어원 소식

I.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1. 공공언어 사용 우수 기관에 감사패 증정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 등 6개 기관—

국립국어원은 2011년 정부기관, 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56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언어 사용을 진단하여 우수 기관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40곳 가운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되었다. 증정식은 2011년 11월 29일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선정 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참석했다.

이번 진단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실시한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 용역의 결과로 2011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보도자료 3건과 10월에 배포된 1건 등 모두 4건의 보도자료를 각 기관별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이번 진단에 사용된 기준은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공공언어 진단 기준’이다.

공공언어 진단 기준(2010)은 공공언어가 가져야 할 정확성과 소통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확성은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으로 나누고 어문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사용하는가가 진단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소통성은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의 세 가지 요소로 차별적 표현의 사용과 권위적 표현 사용, 정보의 형식과 양, 쉬운 용어의 사용 등을 진단 항목으로 하였다.

이번 진단 결과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어긋난 표기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외국 문자나 외국어 사용으로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과 표기들도 다수 나타났다.

이번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채용된 국어전문관이 검토를 한 후에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진단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12년에도 공공언어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기관을 격려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참석

국립국어원은 지난 1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개최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개정판 발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의 보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08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1차 발간 때부터 사전 내용의 감수 등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업무 협정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의 보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던 만큼 이번에 발간된 사전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 용어의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번에 발간한 사전은 지난 2008년 발간한 7,500 항목 규모의 사전에 신규 기술 용어를 추가하여 15,000항목 규모의 사전으로 만든 것으로 국방과학기술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로 다듬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종이 사전과 함께 웹 사전 형태로 발간한 것이다. 이 사전에는 15,000항목 규모의 사전 내용과 함께 '국방 용어 시소러스'도 들어 있는데 이들 내용은 모두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3.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사이트 최우수상 수상 —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2011 올해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2011 올해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는 국립국어원의 ‘디지털 한글 박물관’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향기’(대상) 등 모두 6개의 사이트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22일 방송회관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수상자가 함께 참석하였다. 시상식에서 박만 위원장은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이트가 분야별로 한글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한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도왔고 우리말 실력 향상을 위한 ‘한글 게임’ 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하였다.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이트(<http://www.hangeulmuseum.org>)는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이트로서 학술 정보관에서 한글과 관련된 옛 문헌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하며 역사관, 조형 예술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에서 한글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온라인상에서 특별 기획전과 우리말 실력 향상을 위한 한글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Ⅱ.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결혼 이민자 한국어 능력, 출신국별·거주 지역별로 달라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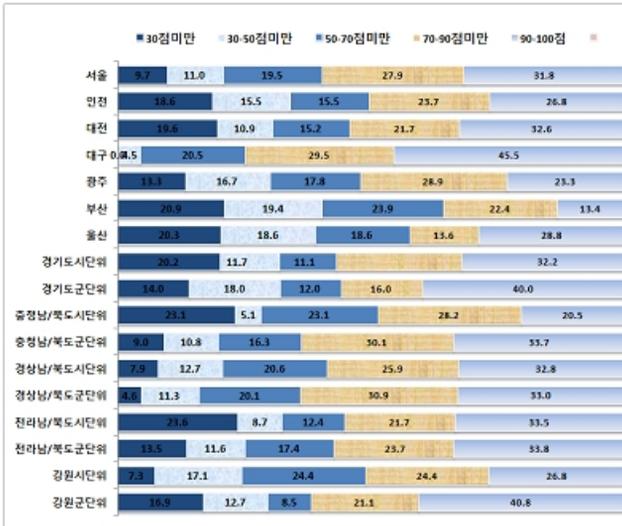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거주 지역, 거주 기간에 따른 국어 사용 환경과 한국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출신국별,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신국별로는 일본(62.8%), 한국계 중국인(55.7%), 몽골(45.6%) 응답자가 한국어 능력에서 높은 점수(90점~100점)를 받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체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대구(45.5%), 강원도 군 단위(40.8%), 경기도 군 단위(40.0%)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구 지역은 30점 미만의 점수 비율이 0%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2011. 10. 기준)

조사 기간	2011. 9. 5. ~ 10. 20.
조사 대상	결혼 이민자 2,026명, 아동 200명
조사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면접 조사
조사 내용	국어 사용 환경(가정, 사회) 언어 태도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거주 지역별 한국어 능력 점수〉

1.1.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 기관에서의 한국어 사용 힘들어

결혼 이민자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공공 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23.5%), 전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3%)’를 꼽았다. 결혼 이민자들은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 기관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매우 힘들어했다. 그러므로 결혼 이민자가 공공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독학용 한국어 교재 등의 맞춤형 교재 필요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55.3%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 학원(34%), 독학(29.6%), 학교(21.2%)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했다고 답하였다.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독학의 비중이 높은 만큼,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학용 교재나 학습지를 개발하여, 외국에 배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와서는 71.3%가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며,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 센터 등의 행정 기관(69.9%)을 이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8.7%는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법은 고학력자일수록 더 선호하였다.

1.3. 중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언어 기능(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측면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쓰기 능력은 일정 거주 기간이 지나도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말하기도 초급 단계에서는 가장 쉬워했으나 고급 단계에 가면 쓰기만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결혼 이민자가 기초 언어생활에 필요한 초급 한국어 습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지

속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 국어 사용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한국어 능력도 차이를 보였다. 국립국어원은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국민 대다수 표준어 필요성에 공감

—현실에 맞게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있어—

국립국어원은 표준어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규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90% 이상이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0.5%에 달해서 현실에 맞게 표준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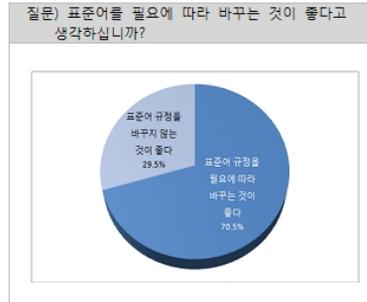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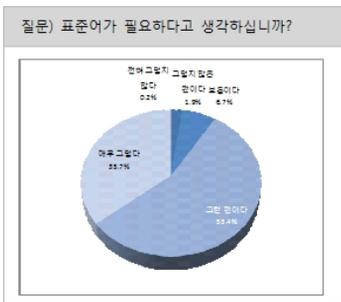
표준어 규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조사 대상	연령별, 계층별 국민 3,000명
조사 방법	면접 조사
조사 내용	표준어 규정 인지도 표준어 규정 이해도 표준어 규정 필요성 표준어 규정 개정 필요성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 등으로 구성된 3,000명을 대상으로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필요성 및 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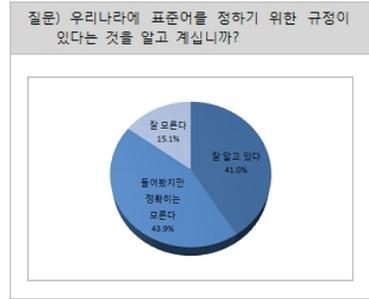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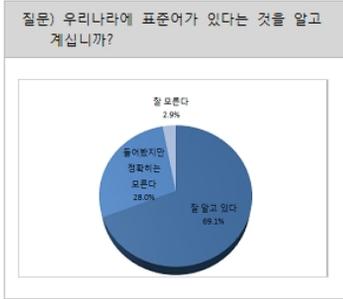
규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97.1%가 표준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84.9%가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91.1%와 93.9%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서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준어 규정 개정 선호도 조사에서는 70.5%가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여, 다수가 필요하다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필요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97.1%, 84.9%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 중에서 28.0%와 43.9%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변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어 규정은 '잘 모른다(15.1%)'고 응답한 사람까지 합하여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표준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표준어 규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 복수 표준어 확대로 실생활 언어 반영 필요

국립국어원은 2011년 8월 언어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짜장면’ 등 39항목을 표준어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에서 실시한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도 현재 비표준어로 되어 있으나 표준어에 비해 월등히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이 다수 조사 되어 이들에 대한 표준어 반영 여부도 이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조사와 별도로 실시된 전문가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복수 표준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국민들 상당수가 필요에 따라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표준어의 추가 인정은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 의식 조사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은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3. 우리말, 제2의 도약 기회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발표—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관한 국가 어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공적

으로 시행된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이어,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을 이상(비전)으로 하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올해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행되는데, 국민의 창조적인 국어능력 함양을 통해 더욱 품위 있는 언어생활로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의 언어가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며, 국외 세종학당 설치 확대로 한류의 지속과 우리나라의 문화 경쟁력 확대를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상(비전)은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등 5대 추진과제 설정해

5대 추진과제의 하나인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과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구사로 많은 논란을 낳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이 과제의 세 가지 사업 중 하나로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젊어질 후속 세대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날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우리말 교실’을 설치·운영하며, 청소년 대상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써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종학당이 한국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 한국어 교육 지도사 파견 등 다채로운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어 정책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의 가치 보전이 빠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초 건립 공사가 시작된 한글박물관의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박물관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온 누리에 떨치며 우리말이 수난을 딛고 일어난 역사와 앞으로 열릴 미래를 보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언어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높이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연말 개통 예정인 미래형 언어사전 (가칭)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 2016년까지 130만 항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족 언어지식의 총체적 관리를 말도록 할 계획이다.

4. 생활 속 애매한 호칭·지칭, 인사의 표준 마련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발간—

부르기 어려운 남편 누나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 정확한 호칭은?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 조심하세요.’는 손님을 존대? 커피를 존대?
결봉의 이름과 속지 내용이 다른 청첩장,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가까운 사이지만 부르기 애매한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여동생의 남편은 ‘○ 서방’과 함께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 ‘매부’, ‘매제’, 여자일 경우 ‘제부’라고 한다. 또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듣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 조심하세요.’는 손님이 아닌 커피를 준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친구 부모 성명] 배상(拜上)’이라 적힌 청첩장 봉투 속에 친구가 자신의 결혼을 알리는 글이 담겨 있다면 발송 주체와 결혼 당사자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고자 “표준 언어 예절”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92년에 나온 “표준 화법 해설”을 20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표준 화법 해설”(1992)은 언어 예절에 대한 표준을 담은 지침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가정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였고 직장 내에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점차 확산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남에 따라 개정된 표준 언어 예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화법의 전 영역이 아닌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어 제목과 맞지 않아 이번 개정에서는 실제 담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 언어 예절”로 제목을 바꾸었다.

국립국어원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서정목(서강대 교수) 위원장 등 국어학자, 언론인, 유학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개정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검토, 표준 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 2011년 11월에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국어심의회 보고를 거쳐 “표준 언어 예절”을 발간하게 되었다.

“표준 언어 예절”은 가정에서의 호칭·지칭, 사회에서의 호칭·지칭, 경어법, 일상생활의 인사말, 특정한 때의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

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혼례, 상례, 축하, 위로와 관련된 서식들을 추가하였다.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표준 화법에 없었던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호칭, 지칭을 추가하였다. 또 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어릴 때에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하였던 것과 달리 현실을 반영하여 장성한 후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에는 ‘○ 서방’과 함께 남자일 경우 ‘매부’, ‘매제’, 여자일 경우 ‘제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남편 누나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에는 ‘아주버님’, ‘서방님’을 쓸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을 ‘아주버님’만 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윗사람에게는 ‘-시-’를 넣어 말하고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시-’를 넣지 않고 말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시-’를 넣어 존대하도록 하였다. 또 ‘축하드리다’가 불필요한 공대라 하여 ‘축하하다’만 쓰도록 하였던 것을 ‘축하합니다.’와 함께 공손함이 담긴 ‘축하드립니다.’도 인정하였다.

새롭게 보완된 “표준 언어 예절”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올바른 언어 예절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관, 언론계, 출판계, 기업체 등에 유용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표준 언어 예절”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국어원은 올해 안으로 “표준 언어 예절”을 보다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모아 만화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5.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생생예능’, ‘따림벗’, ‘공인자격’을 아시나요?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들 잇달아 선보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부터 말터 사이트를 통해서 누리꾼들과 함께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를 쉬운 말로 다듬는 일을 해 왔다. 그런데 누리꾼들의 투표를 통해 순화어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말터 사이트 운영 방식을 2012년을 기해 크게 바꾸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인, 언론인, 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말다듬기위원회를 2011년 11월에 구성하게 되었다. 말다듬기위원회에는 강제형(문화방송), 김용택(시인), 김창섭(서울대), 김태익(조선일보),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박경희(한국방송), 손범규(에스비에스), 안도현(시인),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여규병(동아일보), 이미애(방송작가), 이용원(전 서울신문), 정경희(번역가), 정미경(소설가), 정재환(방송인), 조경란(소설가)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들이 제안한 순화 대상어 중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말을 결정하고 누리꾼이 제안한 순화어 후보 중에 순화어를 확정하게 된다. 말터 사이트에서는 2012년 1월부터 한 달에 1개씩 확정된 순화어를 발표한다.

국립국어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해 2012년 1월에는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의 다듬은

말로 생생예능을, 2월에는 ‘팔로잉(following) : 팔로어(follower)’의 다듬은 말로 ‘따름벗 : 딸림벗’을, 3월에는 ‘스펙(spec)’의 다듬은 말로 ‘공인자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리얼 버라이어티는 리얼리티(reality)와 버라이어티(variety)의 합성어로서, 짜인 각본대로만 하지 않고 출연자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생생한 대사나 행동이 진행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한 갈래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를 가리켜 리얼 버라이어티와 같은 어려운 외국어 용어를 쓰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리얼 버라이어티는 어려운 외국어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에, 생생예능은 ‘출연자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생생한 대사나 행동을 표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잘 담고 있고, 길이도 짧아 다듬은 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트위터에서 ‘팔로잉’은 내가 따르는 사람(자신이 소식을 받는 어떤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팔로어’는 나를 따르는 사람(자신의 소식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팔로잉’, ‘팔로어’는 초보자들이 그 용어를 접했을 때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직역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팔로잉’을 내가 따르는 친구라는 뜻에서 ‘따름벗’으로 ‘팔로어’를 나를 따르는 친구, 즉 나에게 딸린 친구라는 뜻에서 ‘딸림벗’으로 다듬었다. 앞으로 트위터 관련 산업계나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용어를 즐겨 쓰기를 기대한다.

스펙은 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공인 외국어 성적·자격증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원래 스펙은 영어 ‘스펙시피케이션(specification)’에서 유래된 말로 주로 물품의 세부 사항이나 명세를 가리킬 때 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펙은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을 아우르는 뜻을 가진 신조어의 성격이 강하다.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외국어 ‘스펙’은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학력·학점·공인 외국어 성적·자격증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공인자격'이라고 바꿔 쓰면 이해하기 쉽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다듬을 말에 대해 누리꾼들이 순화어 후보로 제안해 준 말들 중에서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순화어를 선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최종 순화어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다듬고 싶은 말과 순화어 후보를 제안하는 일에는 누리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언어문화를 바르고 윤택하게 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 문화의 건전한 발달을 기하고자, 국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일상용어나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시사용어 중에서 다듬어 쓰면 좋을 말을 골라 이에 대한 다듬은 말을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말을 더 쉽고 윤택하게 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온 국민의 참여가 기대된다.

5.1. '피팅 모델(fitting model)'은 '맵시도우미'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피팅 모델(fitting model)'의 다듬은 말로 '맵시도우미'를 최종 선정하였다. '피팅 모델'은 '패션 디자인 분야 따위에서 실제 사람의 착용감, 외관 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 있는 마네킹처럼 분이 되는 의상, 장신구 등을 착용해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피팅 모델'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46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맵시도우미', '멋도우미', '시범착용인', '착용모델'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84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맵시도우미'는 769명(41%), '멋도우미'는 128명(6%), '시범착용인'은 688명(37%), '착용모델'은 262명(14%)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맵시도우미’가 ‘피팅 모델’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2.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는 ‘생생예능’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의 다듬은 말로 ‘생생예능’을 최종 선정하였다. 리얼 버라이어티는 ‘짜인 각본대로만 하지 않고 출연자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대사나 행동이 진행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한 장르’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리얼 버라이어티’를 갈음할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352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들의 제안어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하여 논의를 거친 후 ‘생생예능’을 ‘리얼 버라이어티’의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5.3. ‘팔로잉(following) : 팔로어(follower)’는 ‘따름벗 : 딸림벗’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팔로잉(following) : 팔로어(follower)’의 다듬은 말로 ‘따름벗 : 딸림벗’을 최종 선정하였다. ‘팔로잉’은 ‘트위터에서 내가 따르는 사람(자신이 소식을 받는 어떤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팔로어’는 ‘트위터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자신의 소식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팔로잉하다/팔로잉/팔로어’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4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팔로잉’(사람)과 ‘팔로어’(사람)의 순화어 후보로 제안된 ①‘따름벗 : 딸림벗’, ②‘맺은벗 : 딸린벗’, ③‘따름 : 따름이’ 등에 대해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따름벗 : 딸림벗’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또 관련 어휘 ‘팔로잉하다’, ‘팔로잉’(행위)의 순화어는 ‘따르다’, ‘따르

기'로 확정하였다.

· 관련 예문:

- (1) 그 사람의 따름벗(←팔로잉)은 2000명, 딸림벗(←팔로어)은 700명이다.
- (2) 그 작가를 따르는(←팔로잉하는) 사람이 백만 명이다.

5.4. '스펙(spec)'은 '공인자격'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스펙'(spec)의 다듬은 말로 '공인자격'을 최종 선정하였다. 스펙은 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공인 외국어 성적·자격증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2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스펙'을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642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스펙'의 순화어 후보로 제안된 ①'공인자격', ②'공인능력', ③'맞춤이력', ④'자격' 등에 대해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인자격'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6. 2011년 제6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6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국립국어원 홍보 현황 및 문제점
발표자	이운영 (어문연구팀 학예연구관)
일 시	2011년 12월 20일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문연구팀의 이운영 학예연구관이 “국립국어원 홍보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6.1. 국립국어원 홍보 현황 점검

국립국어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는 크게 간행물, 누리집,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보도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행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 생활과 국어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을 매주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정책이나 국어 생활 관련 쟁점과 국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글을 실어 계간으로 배포하는 〈새국어생활〉, 국어학 연구 동향을 해마다 조사하여 보고하는 〈국어연감〉, 비정기적으로 제작하는 국립국어원 홍보 동영상, 홍보지, 홍보 책자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은 첫 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 접속 수가 매달 2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어문 규범을 검색하고 질의 응답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9월 1일부터 트위터 계정을, 2011년 11월 14일부터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2월 13일 현재 트위터 팔로워(팔로어)는 5,259명, 페이스북 친구는 533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국립국어원의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그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각종 보도 자료와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국어 정책과 국어 생활에 관한 현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6.2. 토론과 대안

기조 발제가 끝난 뒤, 민원 상담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누리소통망과 국어생활종합상담실 등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창구는 현재 하루에 상담해야 할 민원만도 수십 건에 이르는 등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 홍보 담당자들만의 노력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여러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단순히 특정 부서

나 특정인에게 홍보 및 민원 상담 업무를 전담시키기보다 누리소통망 체제와 민원 상담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각 홍보 매체의 특성을 충실히 검토하여 각 매체별 홍보 효과를 증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 정부 언론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100차 정부 언론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12. 1.)

[인 명] - 실무소위 부결

- 벤투라, 제시 Jesse Ventura 본명 제임스 조지 야노시 James George János 1951~ 미국 정치가. 미네소타(Minnesota) 주지사(1999.1.~2003.1.), 브루클린파크(Brooklyn Park) 시장(1991~1995). 전 프로레슬링 선수. 부친은 슬로바키아계, 모친은 독일계.
- *잭맨, 휴 (마이클) Hugh (Michael) Jackman 1968~ 오스트레일리아 배우, 영화·방송 제작자. 뮤지컬 ‘오즈에서 온 소년(The Boy From Oz)’으로 제58회 토니상(2004) 뮤지컬 부문 남우주연상 수상.
- 케인, 허먼 Herman Cain 1945~ 미국 실업가. 2012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 패스트푸드 연쇄점 업체 *갓파더스피자(Godfather's Pizza) 회장 겸 최고경영자(1986~1996). 연방준비은행 캔자스시티 지국 이사회 회장(1995~1996), 부회장(1992~1994).

- 크레이지 호스 Crazy Horse 본명(라코타 어명) 타슉케 윗코 Tȟašúŋke Witkó ?1842~1877 미국 원주민 지도자. 라코타(Lakǫ́ta) 족 추장. *리틀빅혼(Little Bighorn) 전투(1876)에서 커스터(George Custer) 장군의 기병대를 전멸시킴. 역대 대통령 4명을 조각한 러시모어 산 국립기념공원(Mount Rushmore National Memorial) '큰 바위 얼굴'의 맞은편에 194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그의 두상을 세계 최대 규모(길이 195미터, 높이 171미터)로 조각 중.
- 타이슨, 닐 더그래스 Neil deGrasse Tyson 1958~ 미국 천체물리학자.
- 팀버레이크, 저스틴 (랜들) Justin (Randall) Timberlake 1981~ 미국 배우·가수.
- 파파디모스, 루카스 Loukas Papadhimos 그리스 어명: Λουκάς Παπαδημόιος 1947~ 그리스 경제학자·은행가. 총리(2011.11.~).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2002.5.~2010.12.), 그리스은행(Bank of Greece) 총재(1994.10.~2002.5.).
- 포드, *롭 Rob Ford 본명 로버트 브루스 포드 Robert Bruce Ford 1969~ 캐나다 정치가. 토론토 시장(2010.12.~), 토론토 시의회의원(2000.11.~2010.10.).
- 웰던, 댄 Dan Wheldon 본명 대니얼 클라이브 웰던 Daniel Clive Wheldon 1978~2011 영국 자동차 경주 선수.

[지 명] - 실무소위 부결

- 러시모어 산 Rushmore 산 미국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주 서부 블랙힐스(Black Hills) 산맥에 속하는 산. 높이 1,745미터. 화강암벽에 새긴 역대 대통령 4명(Washington, Jefferson, Theodore Roosevelt, Lincoln)의 거대 두상(1927년 착공, 1941년 완성)이 있고, 그 일대는 국립기념공원(National Memorial)으로 지정됨.
- 벤투라 Ventura ①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남부에 있는 태평

양 연안의 군(county). ②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벤투라 군(county)의 군도(郡都).

[인 명] - 재심의

- 듀 모리에, 조지 루이스 팰멜라 뷰손 du Maurier, George Louis Palmella Busson 프랑스 태생의 영국 소설가 -회의 23차

제101차 정부 언론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2. 3. 15.)

[인 명] - 실무소위 부결

- 가세미, 로스탐 Rostam Ghasemi 페르시아 어명: رستم قاسمی 1964~ 이란 정치가·군인. 석유장관(2011.8.~). 혁명방위대(IRGC) 총사령관 겸 방위대 소속 건설기업 하탐안비아(Khatam al-Anbia) 지휘관(2007.9.~2011.8.).
- 데이비스, 비올라 Viola Davis 1965~ 미국 여배우.
- 디뤼포, 엘리오 Elio Di Rupo 1951~ 벨기에 정치가. 총리(2011.12.~). 프랑스 어계 사회당(PS) 당수(1999.9.~). 부총리 겸 경제·통신·무역장관(1998.9.~1999.7.), 부총리 겸 경제·통신장관(1995.6.~1998.9.), 부총리 겸 교통·공공기업장관(1994.1.~1995.6.). 양친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 리처즈, 세실 Cecile Richards 1958~ 미국 여성 정치활동가. 미국가족계획연맹(PPFA) 회장. 텍사스 자유 네트워크(Texas Freedom Network) 설립(1996).
- 마시모프, 카림 (카짐카눌리) Karim (Qajymqanuly) Massimov 카자흐 어명: Қарім Қажымқанұлы Мәсімов; 러시아 어명: Карим Казимжанович Масимов 1965~ 카자흐스탄 정치가. 총리(2007.1.~).

- 부총리(2006.1.~2007.1.).
- 머레츠, 클로이 (그레이스) Chloë (Grace) Moretz 1997~ 미국 여배우.
 - 미스트리, 사이러스 (팔론지) Cyrus (Pallonji) Mistry 1968~ 아일랜드 실업가. 인도 최대 기업 타타(Tata) 그룹과 그 지주회사 타타선스(Tata Sons) 부회장·회장 지명자(2011.11.~). 샤푸르지 팔론지 그룹 회장 팔론지 미스트리(Pallonji Mistry)의 차남. 타타 그룹 현 회장 라탄 타타(Ratan Tata)가 은퇴하는 2012년 12월 회장직에 오를 예정.
 - 미스트리, 팔론지 (샤푸르지) Pallonji (Shapoorji) Mistry 1929~ 아일랜드 실업가. 샤푸르지 팔론지 그룹 회장. 2003년 인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아일랜드 시민권 취득, 인도 뭄바이(Mumbai) 거주.
 - 버터필드, 아사 (맥스웰 스톤) Asa (Maxwell Thornton F.) Butterfield 1997~ 영국 배우.
 - 보위, 리마 (로버타) Leymah (Roberta) Gbowee 1972~ 라이베리아 여성 평화 운동가. 라이베리아 2차 내전(1999~2003)을 종결시킨 여성 주도의 평화적 시위를 이끈. 여성의 안전과 평화 구축 활동 참여 권리를 위한 비폭력 투쟁의 공로로 2011년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 살레히, 알리 악바르 Ali Akbar Salehi 페르시아어명:
 علی اکبر صالحی 1949~ 이란 정치가·외교관·핵과학자. 외교장관 (2011.1.~ , 대행 2010.12.~2011.1.). 원자력청 청장(2009.7.~2011.1.).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대표(1997.3.~2005.8.).
 - 스펜서, 옥타비아 Octavia L. Spencer ?1970~ 미국 여배우.
 - 시케이, 루이스 Louis Szekely 별칭 루이스 시케이 Louis C.K. 1967~ 미국·멕시코 배우·각본가·감독·제작자. 워싱턴 시 태생. 7세까지 멕시코에 거주. 모국어는 에스파냐어. 친조부가 헝가리 출신 멕시코 유대인 이민자. 부친은 멕시코 태생.
 - *아델 Adele 본명 *아델 로리 블루 애드킨스 Adele Laurie Blue

Adkins 1988~ 영국 여성 가수·작사작곡가. '롤링 인 더 디프 (Rolling in the Deep)'(2010) 등으로 2012년 제54회 그래미상 최우수 레코드, 최우수 음반, 최우수 노래 등 6개 부문 수상.

- 앨런, 우디 Woody Allen 본명 앨런 스토어트 코니그즈버그 Allen Stewart Konigsberg 1935~ 미국 배우·감독·각본가. 뉴욕 시의 유대계 집안에서 출생. 조부모가 이디시어, 히브리어, 독일어 사용 이민자.
- 은디아예, 술레만 은데네 Souleymane Ndéné Ndiaye 1958~ 세네갈 정치가. 총리(2009.4.~). 해양 담당 국무장관(2007.7.~2009.4.), 환경 담당 국무장관(2007.6.~2007. 7.), 대통령실 국장(2005.8.~2007.6.), 공무·노동·고용 장관(2005.3.~2005.8.).
- 이우타, 타오마시 Taomati Iuta 1939~ 키리바시 정치가. 제9대 국회의장(2011~). 부통령(1991~1994).
- 체이스, 새먼 (포틀랜드) Salmon P(ortland) Chase 1808~ 1873 미국 정치가·법조인. 제6대 대법원장(1864.12.~1873.5.). 제25대 재무장관(1861.3.~1864.6.). 제23대 오하이오 주지사(1856.1.~1860.1.).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1849.3.~1855.3.).
- 타타, 잠셋지 (누세르완지) Jamsetji (Nusserwanji) Tata 구자라트어명: જમશેજી નુસરવણજી તાટા 1839~1904 인도 실업가. 면직공장 3개소 운영, 뭄바이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Taj Mahal Palace hotel) 설립(1903). 그의 사업체가 후대에 인도 최대 기업 타타(Tata) 그룹으로 발전. 파르시(Parsi) 조로아스터교 성직자 가문 출신.
- 페인, (콘스탄틴) *알렉산더 (Constantine) Alexander Payne 1961~ 미국 영화 감독·각본가. 그리스 집안 태생. 조부가 본성(Papadhopoulos: Παπαδόπουλος)을 현재의 성으로 개성(그리스어 본명은 Αλέξανδρος Κωνσταντίνος Παπαδόπουλος).
- 폰쉬도브, 막스 Max von Sydow 본명 칼 아돌프 폰쉬도브 Carl Adolf von Sydow 1929~ 프랑스 배우. 스웨덴 태생. 프랑스인과 혼인하여 2002년 스웨덴 시민권을 포기하고 프랑스 시민권 취득.

[지 명] - 실무소위 부결

- 말비나 제도 Malvina 제도 포클랜드(Falkland) 제도의 에스파냐 어명.

[인 명] - 재심의

- 마다비 카니, 모하마드레자 Mahdavi Kani, Mohammad-Reza -실무소위(110327)
- 모타키, 마누체르 Mottaki, Manouchehr -회의 95차

[지 명] - 재심의

- 헤메 Häme 핀란드 남부의 주. 주도는 헤멘린나(Hämeenlinna). -회의 33차

[일 반 용 어] - 새로 심의

- 라이 RAI 태풍 이름. 제44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2010년 중국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파나피(FANAPI)의 이름을 라이(RAI)로 변경하기로 결정.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2012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1.1. 2012년 상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신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어원 안에서 시행하는 ‘국어 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낙도, 벽지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국어 전문가들이 찾아가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문 강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기간: 2012년 연중
- 신청 지역: 전국
- 수강 인원: 1회에 30명 이상
- 개최에 따른 강사료 등 국립국어원 부담(연2회)
 - 교재: 무료 제공(인원수에 맞게 신청 바람)
- 개최 장소: 해당 지역 소재 공공장소(강의실, 강당, 구민회관 등) 활용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어문화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연락처: 02-2669-9752,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www.korean.go.kr/kcultur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2012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2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지하철 5호선 종점 방화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2년 상반기)

- 3월 1기: 2012. 3. 12.(월)~3. 16.(금)
- 3월 2기: 2012. 3. 19.(월)~3. 23.(금)
- 4월 1기: 2012. 4. 16.(월)~4. 20.(금)
- 4월 2기: 2012. 4. 23.(월)~4. 27.(금)
- 5월 1기: 2012. 5. 14.(월)~5. 18.(금)
- 5월 2기: 2012. 5. 21.(월)~5. 25.(금)
- 6월 1기: 2012. 6. 11.(월)~6. 15.(금)
- 6월 2기: 2012. 6. 18.(월)~6. 22.(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 값(5일): 20,000원)

마. 수강 희망 인원이 매우 많아 한 기에 부처 당 5명 이내로 수강 신청 인원을 제한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2년 3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2년 3월(제257기, 제258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57기, 제258기

나. 교육 기간

- 제257기: 2012년 3월 12일(월) ~ 3월 16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8기: 2012년 3월 19일(월) ~ 3월 23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2. 2012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2.1. 2012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등)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1. 심사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2012. 1. 9. ~ 2012. 1. 13.
-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2. 1. 27.
- 이의신청 기간: 2012. 1. 30. ~ 2012. 2. 3.
- 2차 결과 발표(최종): 2012. 2. 17.

2. 대상 기관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

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

4. 신청 방법

가. 신규

-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①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담당자 변경 요청(새로운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담당자: 대학 및 대학원은 각 전공과정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지정한 자
단기양성기관은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자.

- ② 심사 신청

5.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제출 자료: 과 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제출 자료: 교 수요목 첨부)	이미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단기 양성과정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제출 자료: 과 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시(수업시수, 교과목 등 변경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제출 자 료: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 정 소개 첨부)	

* 제출 자료 중에 확인신청서(과목/교육과정/양성과정)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같음함. 단, 해당하는 제출 자료는 입력 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6. 문의처

-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전화: 02-2669-9671~2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2012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공고(개인 및 기관 심사)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개인)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등) 심사에 대한 2012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전체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립국어원장

1. 2012년도 개인 자격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2. 1. 16.	'12. 7. 30.	'12. 11. 19.	
심사 신청 접수	'12. 2. 20. ~ '12. 3. 5.	'12. 8. 27. ~ '12. 9. 7.	'12. 12. 17. ~ '12. 12. 31.	
심사 결과 발표	'12. 4. 13.	'12. 10. 19.	'13. 2. 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12. 4월 말	'12. 11월 초	'13.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2. 2012년도 기관(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일정(2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1. 12. 12.	'12. 6. 4.	
심사 신청	'12. 1. 9. ~ '12. 1. 13.	'12. 7. 2. ~ '12. 7. 6.	
1차 심사 결과 발표	'12. 1. 27.	'12. 7. 20.	
이의 신청	'12. 1. 30. ~ '12. 2. 3.	'12. 7. 23. ~ '12. 7. 2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12. 2. 17.	'12. 8. 10.	

<비고>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2012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가. 1급 심사 신청

대 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

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나. 2급 심사 신청

대 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7.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2005.7.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3급인 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 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과정 등록

대 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7.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7.28 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합격확인서(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필수이수학점 미취득자의 자격부여 조치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이수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학점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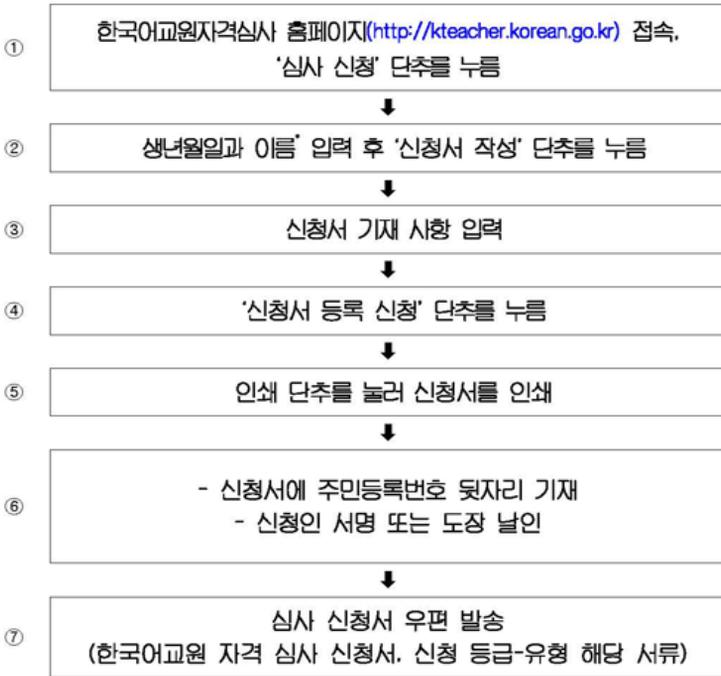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7.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 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7.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마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7.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국내외의 대학·부 설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기관)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해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 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증 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 증 받은 것만 인정함.
'05.7.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
'05.7.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 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기간: 2012. 2. 20.(월) ~ 2012. 3. 5.(월)

4. 신청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람.(2012.3.5.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가. 심사 신청서 상 내용 누락 시

예시) 사진(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등급, 자격증 번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등.

나. ‘1급-12번’, ‘2급-13번’, ‘3급-5번’: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첨부분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 해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메일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다. ‘3급-11번’: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첨부분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2. 4. 13.(금)/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2년 4월 말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 개설

- 주관: 시흥2동 주민센터·국립국어원
- 기간: 2.11.~4.28.(12주) 매주 토요일 14:30 ~ 16:30
- 장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주민센터(3층)
- 대상: 새터민 모두
- 교육 과정 내용(12주)
 1.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발음·억양 교육(6주)
 2.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어휘·표현 교육(4주)
 3. 남북한의 어문 규정(2주)

- 수강료: 무료
- 교재: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교육 교재 무료 제공
- 문의: ☎2104-5403(시흥2동 주민센터)

4. 국립국어원 제5기 국외 통신원 모집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국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5기 국외 통신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추진 목적

- (국의 정책 사례 수집) 국외 언어 정책 기관의 운영 사례와 주요 사업 및 연구 결과 동향 수집,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 소개 등
- (언어 정책 전문가 육성) 각국 유학생의 언어 정책 조사 및 행사 취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언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국외 언어 정책 네트워크 마련

통신원 모집 개요

- 통신원 활동 기간: 2012년 상반기 (2012년 1월~2012년 6월)
- 선발 인원: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국외 거주자 8명 내외 (일부는 4기 통신원 가운데 재위촉)

자격 요건

- 국외 현지에 거주하며 언어·외국어·한국어 교육 등 관련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학생(학사과정 이상)
- 현지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기획력과 기사 작성 능력 및 사진·동영상 편집 등 매체 활용 능력을 갖추고 성실한 취재 활동이 가능한 자
- 블로그 운영 등 그동안 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 부여

○ 활동 내용

-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취재 원고 1편, 자료 조사 1편씩 의무 제출
 - 취재 원고: 언어 정책, 주요 학계 동향 및 연구 내용, 언어 정책 및 연구 기관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행사 취재
 - 자료 조사: 국어원이 요청하는 정책 사례 조사(월별 특정 주제 선정)
- 원고뿐 아니라 취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국립국어원 국외 현지 조사 및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시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가능

○ 통신원 혜택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및 활동 증명서 발급
-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통신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활동 연장
 - 제출된 원고는 내부 평가를 통해 원고료 차등 지급

원고분량	등급	지급액	평가기준
A4 2매 이상 (휴먼명조 12pt)	가(85점)	15만원	1. 국외 정보의 현장성, 참신성(30점) 2. 정책적 시사점, 국어원 업무 연계성(30점) 3. 제출기한 엄수, 분량 및 완결성(25점) 4. 현장 사진, 동영상 등 매체 활용(15점)
	나(70점)	10만원	
단 신		5만원	

- 활동 원고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등에 소개
- 취재 내용 관련 국어원 연구 결과물 등 관련 자료 제공

□ 선발 결과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국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5기 국외 통신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제5기 국외통신원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지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재은(오스트레일리아), 박나람(캄보디아), 박혜승(방글라데시),
연부용(스페인), 원진섭(멕시코), 이현경(인도), 조한울(러시아),
한유미(프랑스), 홍혜정(독일)

IV.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신규 임용

성창혁(행정7급): 3월 5일 임용.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임용 전 실무 수습.
김아영(학예연구사): 3월 26일 임용. 어문연구팀 근무.

전보 발령

이정희(행정서기):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1월 1일)
이규완(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진흥과(2월 8일)
김한샘(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 국립국어원 어문
연구팀(2월 27일)
이현주(학예연구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팀(2월 27일)
조태린(학예연구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진흥과(2월 27일)
김원희(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팀(3월 26일)
조원형(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단(3월 26일)
김영은(행정주사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 국립국어원 기획
관리과(3월 30일)

휴직

구지민(학예연구사): 육아휴직 연장(2012년 1월 10일~2013년 3월 9일)

이운영(학예연구관): 해외동반휴직(2012년 2월 20일~2015년 2월 19일)

최혜원(학예연구관): 육아휴직(2012년 2월 20일~2013년 2월 19일)

복직

박정아(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3월 8일)